

#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시민공동체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전체적으로 자료 숙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질의가 당위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쉬웠다. 또한 시민 생중계 고려했을 때, 시민들에게 시각화된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 운영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뚜렷하고 좋은 대안이 없는 모습이 아쉬웠고,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질의가 계속 되는 모습이 보였다.

### 2) 복지환경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녹지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복지환경위원회는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적, 보완(자료요청)을 요청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위원들이 사업내용 분석,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보이거나 질의 내용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내용과 시책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는 미흡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답변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질의의 내용에 많았기에 질의 시간관계상 중단을 시킨 것으로 보였고 환경녹지국장도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많은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유의미하였으나 질의가 아닌 답변을 끊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던 의원들의 태도와 중복 질의는 다소 아쉽다. 자료조사부터 현장의견 청취까지 성의있게 조사한 의원이 있는 반면, 일부 의원은 사업내용을 묻거나 본인 지역구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등 감사장의 집중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

###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트램도시광역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트램 홍보와, 노후된 노선 계획, 트램과 관련 된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기에서 그쳤을 뿐 질의를 하는 모습에는 전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보였다. 신설기관이기도 하고 아직 현행중인 사항이 많아 질의 답변에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몇몇 의원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지만, 질의 답변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질의만 할뿐이었다. 그리고 질의 중간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지 않고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빨리 회의를 끝내려하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답변자도 중복되는 이야기만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책마련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트램을 설치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 얘기하는 것은 좋았으나 각 의원마다 중복되는 말만 해서 아쉬웠다. 또한 본인의 지역구를 너무 도드라지게 질의하는 경향도 보였다.

###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 미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폐원과 사립유치원 지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 공교육의 범위가 의무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도 포함하여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3일(금) 10:00 ~ 15:4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시민공동체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_시민공동체국 주요 안건

##### ① 빈집정비 사업

- 빈집실태조사 현황 및 기준에 대한 확인
-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 문제 제기 및 조속한 처리 요청
- 빈집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 쪽의 빈집 정비사업 적극적 추진 당부

##### ② 대전 시소

- 대전 시소의 다른 시민 소통 창구와의 중복성과 차별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기준이 두 번에 걸쳐 완화 되었음에도 낮은 참여율 지적 및 적극적 홍보 요구
-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 개선책 마련 요청

##### ③ 기록물 관리 실태

- 전자 기록물 및 종이 기록물에 관한 관리체계 확인
- 기록관 문서고 만고로 복도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지적
- 타 시도의 선례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 확인 및 조속한 기록원 설치 진행 당부

**④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 자원봉사 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 우수 봉사자를 위한 마일리지증의 혜택 지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지적
- 타시도 사례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개선책 제시

**⑤ 대전역 복합관광플랫폼 조성 문제**

- 트래블 라운지와 차별성이 모호함 지적
- 대전 시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특성 있는 운영 당부

**⑥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관리 현황**

- 대덕구 외에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의 모호함 문제 제기
- 마을기업 중간지원 조직이 세종임을 지적하며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중간 관리 조직을 장려하고 투자하도록 요구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뒷받침 당부
-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각 구의 업무 과중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
- 조례가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부재 지적

**(3) 기타**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김종천 : 유성구의 사례를 들어 상황에 맞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공공 갈등 체계적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질의는 좋았으나,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었고 당위적인 이야기를 지속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조는 등 태도의 문제가 발견되는 점이 아쉽다.

- 우승호 : 마을 기업의 육성, 사회적 기업의 실태, 관광 인프라, 자원봉사

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러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감사 중 이석하고 돌아오지 않아 자리를 비운 모습 또한 아쉽다.

- 문성원 : 빈집 정비 사업의 지지부진함에 대한 지적과 지역구의 사례를 들어 질의하는 부분과 대전 시소 운영의 차별성 대한 질의는 좋았으나 당위적인 이야기에 그친 점이 아쉽다.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모습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료 준비와 같은 모습은 좋았다.

- 민태권: 기록물 관리, 인권도시 조성,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를 하였고, 기록원 수립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준비가 좋았으나 자료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모습으로 불필요한 질의가 많은 점이 아쉽다.

##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전체적으로 자료 숙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질의가 당위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쉬웠다. 또한 시민 생중계 고려했을 때, 시민들에게 시각화된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 운영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뚜렷하고 좋은 대안이 없는 모습이 아쉬웠고,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질의가 계속 되는 모습이 보였다.

### 2) 복지환경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3일(금) 10:00 ~ 18:0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피감기관	환경녹지국

■ 위원장 : 손희역, 위원 : 이종호, 박혜련, 윤용대, 채계순

## (2)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복지환경위원회\_환경녹지국 주요 안건

#### ①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에 대해 원도심 발전 배제의 건

- 둔산센트럴파크 사업비 2,000억에 대한 출처와 사업비 세부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신도심 중심 개발로 원도심 개발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 센트럴파크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며 공원의 연결성이 없다고 지적. 대전시 재정자립도 40%미만인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 굳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지적. 사업 제고를 하던지 원도심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질의함. 대전시 싹지공원 조성계획을 질의함. 센트럴파크의 시설물 위주의 사업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질의. 조성사업에 따른 수혜와 피해 대상에 대한 고려에 대해 질의.

+ 2,000억은 시장 공약에 제시되었던 사업비 규모이고 개별사업별로 사업비를 선정했다고 답변. 공원조성 사업은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원도심 소외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변. 싹지공원조성은 원도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센트럴파크에 대해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은 아니며 시민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

#### ②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건

- 대전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자료와 대전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자료의 감축 목표량이 다름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관련 계획들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고 환경국, 교통국 등 부서간 긴밀한 소통과 계획을 공유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만들어한다고 질의함. 대전형 그린뉴딜은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것인가? 부서간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

- 그린뉴딜에 대해 물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질의, 목표가 없다고 말하고 보완하라고 질의. 저탄소 정책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대전형 그린뉴딜은 환경국 및 관련 부서에서 작성하고 기조실에 올려 최종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며 향후 대전형 그린뉴딜 정책을 관련 부서와 기조실과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함.

+온실가스 감축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함. 저탄소 정책을 환경교육센터, 푸른하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진행한다고 답변.

### ③ 하천 관리 계획의 건

- 재난시 하천관리 계획 및 복구상황 질의.(침산보,침산여울 예시) 하천 이용 측면이 휴양이 높았음, 현재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후위기 시대이기에 하천 재해를 유발하는 보와 같은 하천횡단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 관련 용역에 대한 설명 요청. 보 어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질의. 하천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실효성 및 효용성 여부를 판단해 존치 및 철거를 파악해야 함. 하천 본래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질의. 하천에서 오프로드 및 ATV등이 진입하고 있고 불법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질의. 하천변 불법 행위에 대해 계도를 넘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필요를 질의. 하천관리 통합에 대한 질의.

+ (하천관리사업소장 답변)90% 이상 복구 완료, 하천횡단시설물 용역 관련은 생태하천과에서 차후 설명하기로 함. 어도는 용수가 많을 시 기능을 하지 만 없으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국장 답변)치수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하천관리사업소장 답변)사업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추후 강화하겠다고 답변. 하천관리 통합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3. 기타

- 라돈 관리 협약서 자료 요청에 협약안으로 오제출에 대해 지적
- 민간위탁시설(녹색구매지원센터, 대전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질의
- 폐의약품 회수 처리에 관한 질의
- 가로수 안전진단 후 수종갱신 등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  
가로수의 뿌리가 노출되어 보행불편에 대해 질의
- 둔산대공원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운영 중 주차관리원 운영에 관한 질의  
주차장의 유료화에서 무료화 전환과 운영시간외 민원 처리에 대한 질의
- 한밭수목원 시민대상 프로그램 존재여부 질의
- 학교공원화 조성 및 개방에 대해 학교장 권한에 따라 개방 여부 상이,  
기준 마련에 대한 질의  
학교공원화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와 2020년 국비 확보가 안된 이유,  
학교 마다 사업비 금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질의
-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관련 환경녹지국 4개부서 낙제점에 대한 질의
- 재활용품 수거 방안에 대해 타시도 시책 참고 및 시책 마련에 대한 질의

- 무수동 치유의숲 조성 관련 수목식재 기준과 예산 낭비에 대한 질의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방법 및 목적과 효과에 대해 질의
- 유성 메트로칸 공사 소음 피해를 소개하며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 질의
- 등검은말벌(생태계교란생물) 피해상황 및 현황조사 진행에 대해 질의
- 서대전광장 신축 화장실 악취 민원에 대해 질의
- 대전 깃대종이 환경부 보호동물 목록에 배제, 추가 등록에 대해 질의
- 보문산에서 발견된 하늘다람쥐, 담비, 삵 등 대전시 보호동물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질의
- 현행 자연환경조사 시기를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조정에 대해 질의
- 금고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열병합발전에서 구매, 거부에 대해 질의
- 대화동 법동천에 생활오수 원액이 그대로 방류되는 문제에 대해 질의
- 유성지역 퇴비 및 음식물 쓰레기, 비료매립 등 악취 피해에 대해 질의
- 물순환선도도시 9년간 진행 중 상황 설명과 물순환위원회 운영 및 회의 내용, 구성원과 투수블럭 설명에 대해 질의(맑은물정책과장 답변)
- 금고동 위생매립장 악취 민원 내용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 질의
- 행감자료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과 현재 현황에 대한 자료가 누락, 탄소포인트제 현황자료에서 감축현황 표시에 대해 질의
- 대전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차이에 대해 질의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사업의 설치기준과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산확보(추경)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
- 석면관리대책에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과 예산확보(국비와 시비 비율) 방안에 대해 질의
-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혜련 : 민간위탁 관리 질의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자료를 준비.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피감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피감기관 사업 전체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고 시책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아닌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위주로 감사 함. 하수관거 정비사업 질의를 하면서 지역구의 열악한 사향을 강조.

- 이종호 : 센트럴파크 사업관련 질의를 하며 동서균형발전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 둔산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준비성이 있었음. 하지만 피감기관 행감 하루 전에 현장을 조사했기에 질의를 위해 급박하게 확인한 것은 준비가 다소 부족해보였음. 생태교란종에 대한 대책방안 질의를 위해 등검은말벌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준비성이 있었음.

- 윤용대 : 가로수 안전진단, 무수동 치유의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바람길 숲 조성 등 수목과 숲 조성관련을 집중적으로 질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감기관에 사업 설명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등 질의의 수준이 낮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함.

- 채계순 : 기후위기 대응 및 하천, 야생동물 등 피감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정책과 시책,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통합적인 질의함.

## 5. 복지환경위원회 전체 평가

복지환경위원회는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적, 보완(자료요청)을 요청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위원들이 사업내용 분석,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질의 내용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내용과 시책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감사는 미흡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한 후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답변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질의의 내용이 많았기에 질의 시간관계상 중단을 시킨 것으로 보였고 환경녹지국장도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많은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유의미하였으나 질의가 아닌 답변을 끝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던 의원들의 태도와 중복 질의는 다소 아쉽다. 자료조사부터 현장의견 청취까지 성의있게 조사한 의원이 있는 반면, 일부 의원은 사업내용을 묻거나 본인 지역구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등 감사장의 집중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

##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3일(금) 10:00 ~12:10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트램도시광역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 산업건설위원회-트램도시광역본부 주요 안건

#### ① 트램 착공시기 및 트램 노선, 정거장 문제

- 지연된 착공시기에 시민들의 기대감 하락
- 선진지견학을 경험했음에도 방사형 트램이 아닌 순환형 트램을 선택한 고질적 한계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선 관련성 부족

#### ② 변화없는 계획과 시민 공론화 및 홍보부족

- 대시민적 의사소통 부족
- 본부장도 모르는 캐릭터 및 홍보물의 부제
- 96년에 정한 노선과 정류장이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③ 교통체증의 해결방안 및 지역 편차현상

- 교통체증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을 뿐 반영이 되지 않음
- 공사를 4개 구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적절한 교통체증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④ 대전 혁신도시 선정과 트램의 연관성 부족

- 노후된 계획이 현재 혁신도시 계획과 부적합한 면이 있음
-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지만 현재 트램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음

### (3) 기타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해외사례를 가져와 설명을 했으나 대전트램에 부합되는 설명을 했어야 한다.

- 오광영 : 트램 정거장 간의 거리문제와 대전역을 지나지 않은 트램에 대한 문제언급은 필요했지만 시기상 늦었다. 하지만 질의만 하고 답변자의 이야기를 잘 청취하지 않았다. 본인이 준비한 자료에 대한 대답만을 원한 느낌이 든다.

- 남진근 :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료준비와 질의부분에서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주제 그대로 이야기 하는 부분도 아쉬웠다.

- 윤종명 : 트램홍보에 대한 지적과 대시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잘 지적했다. 또한 트램의 공사중, 운영중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 이광복 :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트램 배터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예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만 지적했을 뿐 자료 준비와 설명이 부족했다. 또한 다리의 부과되는 하중에 대한 언급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트램 홍보와, 노후된 노선 계획, 트램과 관련 된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기에서 그쳤을 뿐 질의를 하는 모습에는 전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보였다. 신설기관이기도 하고 아직 현행중인 사항이 많아 질의 답변에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몇몇 의원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지만, 질의 답변은 듣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질의만 할뿐이었다. 그리고 질의 중간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지 않고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빨리 회의를 끝내려하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답변자도 중복되는 이야기만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책마련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트램을 설치한 나라의 사례를 들어 얘기하는 것은 좋았으나 각 의원마다 중복되는 말만 해서 아쉬웠다. 또한 본인의 지역구를 너무 도드라지게 질의하는 경향도 보였다.

####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9일(월) 10:31 ~ 16:51

#####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주요 안건

###### ① 공립유치원 정원 수 미달에 문제에 질의

- 공립유치원이 계속된 정원 수 미달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추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함
- + 계속된 정원수 미달은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 학무모의 불편사항들을 정리해서 조치할 예정임. 통학버스 도입 및 돌봄서비스 개선 등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고려 및 노력하고 있음.
-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유치원 정원수 미달에 나왔지만 설문조사 개선 노력이 없음을 지적함. 공립유치원을 통합해 운영하거나 사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함.
- + 공립유치원운영은 공공성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됨 . 교육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함.

**②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급식안전점검에 대한 질의**

- 학교급식법이 바뀌면서 내년 1월부터 유치원에도 적용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급식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인지 질의함.
- + 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은 인원수와 관계 없이 모두 학교 급식에 포함됨.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50명 이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본 지원청에서는 급식 담당공무원을 인원을 배치 받아 시행규칙과 지침을 11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50명 이하 사립유치원까지 실시할 예정임.
- 안산지역 장출혈성 대장균 문제가 있었다. 유치원에 대한 급식 안전에 우려가 됨. 서부지원청은 2년에 한번 실시를 하면서 유치원 수의 반밖에 점검하지 않는지 질의함.
- + 장출혈성대장균문제가 나옴에 따라 급식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하 것과 절반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함.
- 규정에만 맞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위해 더 실시 할 것을 강조함.

**③ 음악대회 관련 장기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질의**

- 동부교육지원청이 2014년 이전부터 매년 음악대회예산이 280만원이지만 매년 300만원 차이로 예산에 맞지않게 집행이 됨. 또한 매년 예산과 맞지 않게 다른 경연대회에서 예산을 돌려쓴 것에 대해 지적함.
- + 해당사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21년 계획에는 해당부서에서 다행히 수정하였다고 답함. 해당 사항에 대해 매년 발생한 문제였지만 인지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제대로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답함

**④ 서부지원청사 이전 관련 안전문제와 운영 계획**

- 서부지원청사가 40년 된 유성중학교 자리로 이전한다는데 오래된 건물을 대수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전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질의함.
- + 청사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임. 결과에 따라 개축, 대수선, 대수선+증축 등을 결정할 것임.
-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설립 계획을 질의함.
- + 5천평 부지라서 다른 기관도 많이 들어올 것이며 문화센터 도서관 설

립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함.

### (3) 기타

- 계속된 공립유치원 정원 수 미달에 따른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
-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의 정원수/ 현원 차이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의
- 동부교육지원청의 관할지역 내 당면과제에 해결을 위한 사업목표 수립에 대한 질의
-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변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급식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점검 주기에 대한 질의
- 전체 중·고교생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에 대한 질의
- 음악대회 예산의 장기간 잘못된 예산수립과 예산집행에 문제에 대한 질의

##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조성철 :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해 질의 하였고 질의에서 학생들의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질의는 좋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육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하였다.
- 우애자 : 마을교육, 공립유치원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질의 하였다. 하지만 형식적인 사업보고에 답하는 질의이기에 다소 아쉬운 질의였다.
- 김인석 : 유치원 급식안전에 대해 질의 하였다. 급식안전에 대한 질의는 좋았으나 공립유치원 정원수 미달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 정기현 : 공립유치원의 정원수 미달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질의 하였고 방안으로 세운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보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으로만 보아 매우 아쉽다.

##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 미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폐원과 사립유치원 지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 공교육의 범위가 의무교육 뿐 아니라 영유아 교육도 포함하여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